

소비자

“항공권 가격 비싸” vs “수요·공급 측면 정상”

항공업계

항공권 가격 체감 설문조사
응답자 10명중 7명 “비싸다”

日 항공권 인기 시간대 80만원
LCC 조차 40만원 이하 없어
“이르면 2분기 해소 가능성”

코로나19 팬데믹이 엔데믹 분위기로 전환되면서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반면 치솟은 항공권 가격에 여행갈 엄두가 안 난다는 소비자들도 많아지는 실정이다. 이에 항공사들은 “수요와 공급이 결정하는 운임”이라며 폭리와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이다.

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제선 여행객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항공정보포털시스템과 한국항공협회에 통계에 의하면 올 1월 우리나라 전체 국제선 여객은 461만 1000명으로, 이는 지난해 1월보다 1187% 증가한 수치다. 아직 코로나19가 퍼지기 이전인 2019년 수준에는 못



출국 인파로 북적이는 인천국제공항 전경

/뉴시스

미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은 회복했다. 항공업계에서는 운항률도 70%가량 회복했다고 보고 있다.

그룹에도 “하늘길 뚫려도 비싸서 못 간다”는 소비자들이 다수다. 여행플랫폼 ‘여기어때’가 지난달 진행한 아시아 여행 경비 관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71.5%)이 현재 체감 항공권 가격을 ‘비싸다’고 답했다. 다만 항공권과 숙박의 체감 경비가 높아도

10명 중 6명(59.2%)은 ‘일단 떠나겠다’고 응답해 해외여행에 대한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특히 일본으로 떠나는 항공권 가격은 작년 말에 비해서 많이 높아진 상태다. 11월 경 주말기준 20~30만원으로 도쿄와 오사카 등 일본 주요도시를 방문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같은 주말 기준 아침 8시에 탑승해야 30만원 후반대로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저

비용항공사(LCC)들 조차도 40만원 이하의 항공권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40만원 이하의 비선호 시간대 정도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인기 시간대에는 80만원 초까지 가격이 상승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LCC들에게도 사정은 있다. 결국 수요와 공급이 운임을 결정하게 되는데 항공 운항률이 코로나19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된 것도 아니고, 억눌렸던 여행심리가 한 번에 폭발해 지금의

공급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벅찬 상황이라는 이유에서다.

LCC 관계자는 “이미 작년 3, 4분기에 올해 1분기 겨울 여행을 예비해둔 고객들이 저렴한 표를 구매했기에 남은 표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것만 남아있다고 보면 된다”며 “대형항공사와 가격 역전을 이룬 것도 몇 건 되지 않는데 그런 경우가 없다 보니 더 주목된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LCC들도 국내선을 줄이면서까지 증편에 나서고 있지만 수요가 더 빠르게 증가해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1분기 동안은 이어질 전망이지만 업계에서는 학생들의 개학과 항공권 공급 확대로 조금씩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LCC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학생들의 방학 시즌과 겨울 여행객들의 수요가 몰린 감이 없잖아 있다”며 “이르면 2분기에는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한화큐셀, 발전량 예측 통해 분산에너지 선도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사업 개시
노하우·영업망 활용 발전소 모집

한화솔루션 큐셀 부문(이하 한화큐셀)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사업을 시작하는 등 국내 분산에너지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한화큐셀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정확도 높은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사업을 최근 개시했다고 8일 밝혔다.

한화큐셀은 모집한 발전소의 발전량을 하루 전에 예측해 전력거래소에 제출하고 예측 정확도에 따라 정산금을 받아발전사업자들에게 분배한다. 예측 사업에 참여하는 발전사업자들은 전력 판매 수익 외에 추가 수익을 확보하고 전력거래소 등은 전력계통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는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을 예측해



한화큐셀 진천공장 주차장(왼쪽)과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에 설치된 대표적 분산에너지 자원인 태양광 발전소

정확도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분산에너지가 연계된 전력계통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력거래소가 시행하고 있다.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 지역 인근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가 대표적인 사례다.

발전량 예측이 정확할수록 많은 정산금을 받을 수 있다.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한화큐셀은 지난 1월 실시한 전력거래소의 예측 시험을 높은 정확도로 통과해 발전

사업자들에게 업계 최고 수준의 정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국내 최대 태양광 기업인 한화큐셀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재생에너지 사업 노하우와 영업망을 활용해 발전소 모집에 속도를 내고 있다. 모집을 본격화한 지 약 1개월만인 지난해 12월 말 전력거래소의 사업 참여 기준을 충족하는 데 성공했다. 현재도 경쟁사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소를 추가 모집해 나가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 19개社, 대규모 신입 공채 시작

삼성커리어스 홈페이지 ‘지원서’
GSAT 등 역량 테스트 거쳐 선발

삼성이 어려움 속에서도 대규모 신입사원 채용에 나선다.

삼성은 8일부터 관계사별로 채용 공고를 내고 2023년 상반기 공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채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호텔

신라 ▲제일기획 ▲에스원 ▲삼성웰스토리 ▲삼성전자판매 등 19개사에서 실시한다.

이번 공채는 삼성커리어스 홈페이지에서 15일까지 지원서를 받아 ▲직무적합성평가(3월) ▲삼성직무적성검사(4월) ▲면접 전형(5월) ▲채용 건강검진(6월)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직무적성검사(GSAT, Global Samsung Aptitude Test)는 온라인으로 치러진다. S/W 개발 직군 지원자들은 직무적성검사 대신 주어진 문제를 직접 코딩하는 ‘S/W 역량테스트’를 거쳐 선발한다. 디자인 직군 지원자들은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제출해 디자인 역량을 평가한다.

한편 삼성은 국내 대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신입사원 공채를 유지하고 있다. 1957년 국내 최초 공채를 실시하고 1993년 처음으로 여성 신입사원 대상, 1995년에는 남녀 공채를 통합하고 학력을 제외하는 등 공채 제도 시작과 발전을 함께해왔다. 남녀 모두에 해외 지역 전문가와 주재원 과전 기회를 보장하는 등 양성 평등에도 앞장섰다.

그 밖에도 삼성은 청년들이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김재웅 기자

YouTub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2023

디지털 공정 솔루션·성공 노하우 전수

LS일렉트릭 국내 최대규모 부스
델타로봇, 디지털 트윈 등 전시

LS일렉트릭이 미래 공장을 소개한다.

LS일렉트릭은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2023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LS일렉트릭은 국내 기업 중 최대 규모인 210㎡로 부스를 조성했다. 디지털 매뉴팩처링을 콘셉트로 기기와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을 아우르는 디지털화된 자동화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한다.

구체적으로는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LV(저압) 드라이브 신제품 ‘S300’,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강화되는 산업안전에 대비한 ‘안전 솔루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제조·물류 공정을 구현하는 ‘델타로봇’과 ‘무빙마그넷’, 스마트 공장을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등

자동화 솔루션을 전시한다..

아울러 부스에 별도 세미나 공간을 마련해 엣지 허브와 텍사, 보안프로그래밍 등 디지털 공정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솔루션과 성공 사례도 소개한다.

특히 국내 최초의 오픈형 스마트팩토리 플랫폼인 테크스퀘어 전담사업팀이 스마트공장을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 지난 4년 간 다양한 기업들과의 협업 경험 사례와 이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전수한다는 계획이다.

/김재웅 기자 juk@



LS일렉트릭 부스 전경

로봇운송, AI 확인… 미래 산업현장 구현

CJ올리브네트웍스

AI 예지보전, AI 비전검사 등
스마트통합 물류 솔루션 전시

CJ올리브네트웍스가 ‘2023 스마트팩토리·자동화 산업전’에 스마트팩토리 및 물류 솔루션을 선보이며 미래 제조 산업현장의 모습을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전시장 내 스마트물류 특별관에서 ▲제조현장에서의 최적의 운영을 위한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국내최고 물류 기

업의 IT서비스 운영 노하우로 탄생한 ‘스마트통합 물류 솔루션 및 자동화 설비’ ▲신기술을 활용한 ‘AI 예지보전, AI 비전 검사’ 솔루션 등을 전시한다.

관람객들은 CJ올리브네트웍스가 제안하는 미래형 물류 현장을 살펴볼 수 있다. 물류 창고에서 로봇이 제품을 운송하고 AI 비전 기술로 제품의 정보를 정확히 인식한 뒤, 컨베이어 벨트로 최종 운반 지점까지 자동화로 구현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